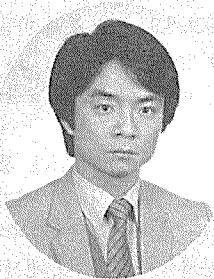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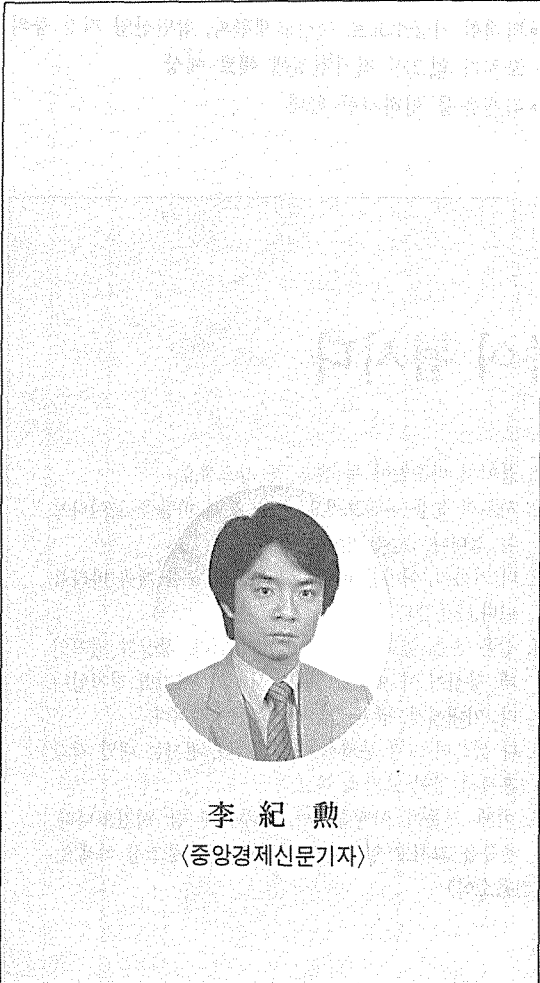


판사 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記者는 기사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또 주제발표까지 하게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動資部출입기자로서 석유산업과 석유정책에 대해 느낀 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석유산업, 석유정책과 언론



李紀勳
(중앙경제신문기자)

취재생활에서 느낀점은 석유산업이나 석유정책 추진 상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기업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적어도 기자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이모저모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말씀은 아직 생각이 짧아서 그럴수도 있으려니 생각하시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하고 참고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石油産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석유산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아주 수익성이 높은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는 석유산업은 수요가 보장돼 있고 이윤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원가나 이익을 따지기도 힘들고 마치 북마전과 같다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산업의 혈액이라는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극히 중요한 기간산업, 기초산업이라는 측면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인식이 먼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石油政策은 精油社보호막

석유정책을 다루는 動資部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석유산업기금이 떠오르고 그 즉시 눈먼 돈이란 단어가 연상되는 모양입니다.

즉 5, 6조나 되는 돈이 일개부에서 혹은 몇몇 개인이 맘대로(?) 쓰면서 때로는 정치자금화하고 때로는 증시 자금화하는게 아니냐는 인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動資部는 정유사들의 로비에 놀아나거나(?) 업자들 편에 서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말이 動資部는 정유사의 방패막이 역할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動資部와 석유산업도 政經유착의 예외는 아니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言論에 대해서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않는 엉터리 기사를 쓰거나 업계쪽 선전에만 열중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봅니다.

• 너무 부정적 측면만 강조됐다

지금까지의 여기는 적어도 석유산업, 석유정책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됐거나 사실 이상으로 과장된 부분 혹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예컨대 1,2차 석유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경제가 성장 가도를 달려온 것도 에너지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준 석유산업과 정책때문이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쌀 기름 탕으로 자동차도 난방, 온수도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석유산업이 황금알 운운하지만, 실제 '80~ '88년중 평균자기자본이익률은 3.6%로 제조업평균보다도 뒤지는 것은 앞서 黃부회장님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또 석유산업 가운데 정유업 이익률은 -1.6%로 나타났습니다.

땅짚고 헤엄치기는 커녕 정부가 원유도입에서 판매까지 모든 인·허가 각종 규제를 다 틀어쥐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가격정산이라고 해서 허용이상 이익은 회수해 갑니다. 땅짚고 헤엄치기란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유소업체들이 정유사 위에 군림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국제원유가는 상승하고 환율도 뛰는데도 운전자금이 펍박대는 2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봐도 땅짚고 헤엄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정부가 거미줄같은 각종 규제를 하면서 조여대는 바람에 정유사는 죽겠다고 비명이고 담당관리는 정유사의 불평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政經유착이란 당치도 않은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게 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석유산업 초창기때 외국자본이 한국에서 떼돈을 벌어들였다.

또 석유란 세븐시스터즈니 메이저니하여 다국적 기업의 횡포와 농간에 놀아나는 상품이란 인식이 보편화돼 있다.

석유를 발견하면 노다지라고 떼돈이란 인식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

실제로는 정유사의 外形이 엄청나다 등등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외형은 제조업 전체 매출액 비중의 10%에 달할 정도로 크지만 그 중에서도 石油가 원가비중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덩치만 큰 빛좋은 개살구 꼴입니다.

한편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부정적 시각이 형성되도록 이끌어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 석유산업이自省할 면은 없는가

그렇다고 석유산업, 석유정책을 보는 일반의 눈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모두 이처럼 잘못된 판단 때문인지, 업계나 정책면에서 반성할 면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 뭐라 해도 지난 '70년에 22만B/D이던 정제능력이 '89년에 84만B/D로 늘만큼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유사의 가동률은 일부회사가 130%에 달하고 있고 폐기·전용키로 했던 설비까지 가동하고 있을 정도로 好況입니다.

정유업은 이익도 형편없고, 정부등쌀에 시달리고, 여론도 좋지 않은데도 하기 싫다는 사람은 없고 어떻게 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도 아이러니입니다.

황금알은 아니더라도 좋기는 좋은거구나 라는 인식이 생길법도 합니다.

정유5社가 신규참여를 극력 반대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정유사들은 신규참여는 과잉,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반대합니다.

또 기존 정유사들이 아직 경제규모와 자생력을 갖추 때까지도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방않고 육성, 보호해 왔는데, 그동안 정유업계의 산적한 과제가 줄고, 경쟁력, 자생력이 향상되어왔는지 의문입니다.

이 정도의 경쟁력신장추세라면 개방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정도입니다.

얼마전 雙龍-셀 合作工場설립건에서 제가 받은 인상은 ① 아직도 외국회사에 비해 수준격차가 심하거나, ②정유산업이 업살과는 달리 괜찮은 거구나 ③정유사들은 현체제에서 계속 향유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또 기존 정유사들이 신규참여회사는 막대한 투자비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결국 망하니까 아예 못들어오게 막아야 한다는 논리는 고양이 쥐생각하는 것처럼 꼭 맞지는 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정유사들이 收益率이 낮다고는 하지만, 주유소관리비를 과다지출한다든가, 정유5社가 똑같이 비용산정을 높일수 있다든가 정유이외부분 비용을 정유부분비용으로 전가할수 있다든가 하는 원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유사의 유통유 부분이익률이 상식적으로 생각 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이 하나의 예라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증질유분해니 탈황이니 하는 시설고도화 투자는 계속 지연시키면서 계속 정부에 손만 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석유산업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에는 정유사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 석유정책은 最上이였는가

석유업계편드는 것이라는 등 석유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릇됐고 그동안 석유정책이 바람직하게 운영돼 왔는가自省해 봅시다.

1, 2차 석유위기때는 물불을 안가리고 공급하느라고 애썼습니다만, 과연 그때 생활에서 싸게 잘 들어왔는지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급·가격안정에 절대기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국제적 여건이 좋았던 것입니다.

비축, 시설증설, 송유관건설 등등 동자부 치적은 모두 돈이 한 것입니다. 석유사업기금을 건어서 한 것입니다. 막말로 돈있으면 누구든 이런 일 못했겠습니까. 오히려 가격·수급안정기에 수요관리를 못하고 공급사이드에 치중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자율화 시대에 느는 소비를 억지로 막을수 있느냐하면 그만이겠습니다만. 돈들어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잘했다 소릴 들으려면 그 일을 하는 것이 판일을 하는 것보다 나아 야 합니다. 동자부가 업계와 유착돼 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업계의 이해가 얽힌 부문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예컨대 3·14명령, 풀 사인제도 직거래문제, 주유소 거리제한, 석유산업규제완화 정책 등등 한들이 아닙니다.

업계의 이익에 초연하고 국민복지만 생각한다면 벌써 해결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80년대 초에 2백여억원의 기금이 명분이 빈약한데도 특정 정유사 지원명목으로 지출됐다는 과거 사례는 政經유착이란 말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 에너지위기에 대하여

動資部 석유정책의 功過는 에너지위기에 있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최근 들어 動資部는 오는 '90년대 후반부터 석유과동과 같은 쇼크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세계석유소비의 증대에 따라 OPEC의 영향력이 커져 다시 Sells market 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강조하는 배경에서 위기에 대처하려면 動資部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1, 2次 석유위기때문에 動資部가 생겨났듯이 말입니다. 또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수급은 안정됐으니 動資部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난해 行政改革

委員會의 논리를 반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에너지위기도래의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90년대 후반 국제유가가 본격 반등한다고 보는 국제기관들의 예측수준이 배럴당 30달러 안팎입니다. 현재 18달러수준보다는 분명히 높지만, 과거 '80년대 중반까지도 30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00년에 30달러가 된다고 결코 위기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돌발적인 사태로 짧은 시간내에 일시적으로 급등할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단지 우려나 說에 그칠뿐 보편화된 전망이나 통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도 있는 것」을 가지고 '90년대 에너지위기가 定說인양 우려하는 것은 옳지않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1, 2차 석유위기를 겪고도 오랜 기간 수급안정기에 실시된 석유정책은 에너지위기에 더욱 취약한 체질로 만드는 것이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석유의 中東의존도, 경제의 석유의존도, 석유도입中 현물비중, GNP對비에너지소비탄성치 이런 모든 수치들은 지금은 1, 2차 위기 때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자부가 발족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석유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체질로 변한 것입니다.

동자부가 에너지위기를 강조하면 할수록 위기에 취약하게 만든 에너지정책부재의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오는 2000년에는 석유수요가 150万B/D가 돼 세계6大 석유도입국이 된다는 李會晟원장님의 말씀에 자부심보다는 전율이 생깁니다. 세계6大 원유도입국이라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 바람직한 석유기업像, 석유정책방향

최충우들, 황철수설도 무책임하게 문제점만 지적하고 제대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해 제가 한말을 주위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만, 장차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선 기업은 이윤추구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복지·후생이니 사회적 책임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석유기업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目的의 조그만 이익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正五社間의 泥田開狗-표현이 적절치 못해 죄송합니다만-로 小貧大失하지 말고 더 큰 돈을 버십시오. 연구개발과 투자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여 국제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경쟁에 있어서는 정해진 룰에 따라 페어 플레이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대신 정부가 기업은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당한 이윤을 벌도록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된 룰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이상 보호보다는 자율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석유산업단계적 자율화방안은 지금 어느하나 실질적으로 실현된게 없습니다.

신규참여허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에너지수급안정 가운데 수요관리측면을 특별히 강화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에는 외부적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 요인 때문에 에너지위기가 옵니다.

아울러 에너지도 量보다는 質, 환경측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할 시점으로 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역할은 앞으로 크게 증대되어야 하고 또 그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만 보고도 누가 시킨 것인지, 무슨 목적인지를 짐작할수 있다든가 정부 정책실시 이전에 앞북을 치거나 정책실시후 맞장구치는 국책연구소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는 주문자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연구결과나 동자부정책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담은 연구성과가 오히려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言論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언론은 지금까지 논지의 일관성과 메시지 전달효과를 위해 어떤 사물의 특정면만을 강조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기사를 쓰면 뒷부분은 대개 생략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자는 인간인 만큼 취재내용에 대해 好惡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자는 뭔가 새로운

것, 즉 뉴스에 약합니다. 기사가 된다고 생각되면 안쓰고 못배깁니다.

이런 속성들을 잘 이해하시고 잘 이용하시길 기대합니다.

취재할때 기자로서 딜레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도하면 자금줄이 끊겨 금방 무너질 수 있을때 갈등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기업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가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政經을유착이 아니라 정확한 실상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서 석유업계와 석유정책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아울러 言論에 대해서도 항상 애정을 갖고 잘못에 대한 질책과 시정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을 위한 식사지침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자

영양상 균형이 잡힌 식사를 하려면 건강유지에 필요한 40여 종의 영양소를 각 개인의 필요량에 만족되도록 섭취해야 하나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은 매우 다양하고 식품마다 영양소의 종류와 함량이 달라 섭취량을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양소 조성이 비슷한 식품을 균으로 묶어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정상 체중을 유지하자

체중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섭취한 열량과 소비된 열량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체중을 줄이고 싶을 때는 열량만 높은 설탕, 탄산음료 등의 단 음식이나 튀김 같은 음식은 적게 섭취하고 활동량을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자

단백질은 여러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일상 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로 아직 섭취량이 1일 성인 권장량 60그램에서 70그램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육류, 어패류, 달걀 등 동물성식품은 아미노산의 균형이 우수해 식물성식품에 부족한 아미노산의 보완 기능이 높다.

지방질은 총열량의 20퍼센트를 섭취하자

우리 국민의 지방질 섭취량은 대도시의 경우 총 열량 섭취의 15퍼센트, 농촌은 9퍼센트 밖에 안돼 영양 권장량인 20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일부 비만형 체질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방질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방질이 낮은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질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우유를 매일 마시자

우유는 우리 식사에서 매우 부족한 칼슘과 리보플라빈 함량이 높은 식품, 한 컵(200ml)에 칼슘 250밀리그램, 리보플라빈 0.36밀리그램이 함유된 우유를 매일 마시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

짜게 먹지 말자

식염의 성분인 나트륨은 체내 대사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지만 과잉 섭취를 하면 고혈압 등 성인병 발병을 재촉한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기준 섭취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자

우리나라 사람 90퍼센트 이상이 충치를 갖고 있다. 충치발생을 유발하는 사탕,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소비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구강내 청정작용을 하는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술, 담배, 카페인 음료를 절제하자

카페인 음료는 중추 신경을 자극, 혈압을 상승시키고 철분 흡수를 방해해 불면증, 두통, 무기력, 불안 증세를 유발한다. 술이나 담배도 몸에 이로운 점보다 해로운 점이 많다는 것을 여러 연구 조사에서 확인된 것, 가능한 한 삼가는 것이 좋다.